



광주경총-원난기업연합회 업무협약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원난(운남)기업연합회가 지난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된 금요조찬 포럼에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에서 황환, 쇠쑤보 부총영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경총과 원난기업연합회 간 경제, 무역,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 기업들의 발전은 물론 양국 간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주요 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투자 환경 조성 등 경제 교류 지원 △회원 기업들의 수출입 증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 공유 △경제 교류단 및 투자 유치단 상호 방문과 친선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연수 기자



한국섬진흥원 '섬 쓰담견기' 캠페인

한국섬진흥원(원장 조성환)이 최근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민관협력 생물관다양성 보전 쓰담견기(플로깅)'를 실시했다.

한국섬진흥원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Sh수협은행 목포금융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본원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생물관다양성의 날(5월 22일)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하는 실천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민과학자 특강도 진행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했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행사"라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청사 옥상(달빛마당) 개방, 섬 지역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말 사랑나눔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광주대 호심봉사단, 장흥서 재능기부

광주대학교 호심사회봉사단은 최근 장흥군 대덕읍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한 '전남농협 해피버스테이' 농업인복지서비스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18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광주대 호텔조리제과 제빵학과와 뷰티미용학과, 학생복지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자장면 중식 제공 △네일 케어 및 손 마사지 △일상 사진 촬영 등 전공을 살린 복지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심신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

특히 오랜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정성껏 돌보고, 인생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활동은 현장 참여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호심사회봉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배운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봉사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ACC 미래운동회' 장애·비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50여명 놀이문화 체험

모션캡처 카메라 센서 등 활용
"열린 문화예술공간 거듭날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16일 복합 전시1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미래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ACC를 찾은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 50여 명은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 관람 후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스포츠 축제인 'ACC 미래운동회'를 통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경험했다.

ACC는 이번 행사를 위해 두 차례의 운동회 시연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장애인의 자문을 받아 몸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모션 캡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땅따먹기'와 AI 기술을 접목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콘텐츠를 통해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놀이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따르릉 전화받으세요' 프로그램은 정해진 공간에서 정각만으로 보이지 않는 전화벨 소리를 찾아내는 게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함께 경쟁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ACC 미래운동회 특별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축제의 새로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6일 복합전시1관에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 50여 명을 초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운동회를 개최했다. ACC 제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ACC는 예술과 기술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모두에게 열린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ACC 미래운동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전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광주청년들, 내일배움카드 알리미 나선다

광주노동청,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최근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학일자리센터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청년들이 고용센터를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홍보 강화

를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내 대학생 14명이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됐다.

서포터즈단은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퍼스내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사례와 혜택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제도 이해 교육, 콘텐츠 제작기법 강의, 고용센터 탐방 등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

년 서포터즈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동강대학교 보육복지과, 선진산업체 견학

동강대학교 보육복지과(학과장 김남균) 학생들이 지난 17일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재)광주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선진 산업체 견학'을 실시했다.

선진 산업체 견학은 전공 분야의 현장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심을 기르고 학

생의 적성과 취업 방향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교육이다. 교수와 학생들은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화장지를 전달한 뒤 정경남 본부장 안내로 업무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놀이터, 식당, 목욕탕, 파크골프장 등을 둘러봤다. 최환준 기자



광주 OK웃맨 럭비단, 전남고 원포인트 레슨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이 지역 럭비 유망주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에 나섰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웃맨 럭비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고와 상무시민공원에서 전남고 럭비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포함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웃맨 럭비단은 지난 2월 시체육회와 연

고 협약을 맺은 광주 유일의 럭비 실업팀이다. 웃맨 럭비단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전남고 럭비팀을 위해 포지션별 기술 지도는 물론 전술 이해도와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둔 훈련 등을 함께 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웃맨 럭비단의 주기적인 전지훈련이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실전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원 기자



전남경찰청, 5·18 순직 경찰관 추모

전남경찰청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순직한 경찰관들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추도식은 지난 16일 전남경찰청 내 안병하 공원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등 순직 경찰관의 희생을 애도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순직경찰 영웅

들의 헌신적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정성을 다하는 치안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등과 함께 순직 경찰관의 희생을 애도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담양청소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폭예방 캠페인

담양군청소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생현)이 최근 담양 수북초등학교에서 담양군청·경찰서·수북파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개선 홍보물품인 팸플릿과 하이틴, 화장지세트 등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에 대

한 경각심을 알렸다. 학교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서생현 담양군청소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며 담양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